

# 신체 세정제

손비누, 바디 클렌저, 클렌징, 청식제



## 01

### 제품

- 신체의 피지와 오래된 각질, 먼지나 화장품 등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 거품을 내서 씻어내는 타입(주로 세안용, 손 씻기용, 바디용), 기름이나 용제의 더러움을 닦아내거나 씻어내는 타입(주로 메이크업 클렌저)이 있다.
- 청식제는 물로 씻거나 목욕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 02

### 초기대응 포인트



#### 경구 노출

- 입안의 물질을 제거한 후 입을 행구며, 유제품 또는 물을 마시게 한다.
- 얼굴이나 손발, 의복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샤워 등으로 전신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

#### 즉시 진료

- 구토, 구강 점막의 종창, 안면홍조, 흥분상태 등이 지속되는 경우
- 증상이 없어도 대용량으로 섭취한 경우(특히 소아나 고령자)
- 기침 등 잘못 삼킨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만약을 위한 진료

- 증상이 없어도 알코올 함유 제품을 몇 모금 마신 경우 (체중 1kg당 2mL 이상)

#### 경과 관찰

- 핏거나 한 모금 마신 정도로 목의 통증, 구역질, 구강의 위화감 등, 경증의 소화기 증상의 경우



#### 눈에 들어간 경우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 즉시 세안한다.

#### 즉시 진료

- 눈 뜨기 곤란한 경우
- 눈 씻기가 어려운 경우
- 콘택트렌즈가 빠지지 않는 경우

#### 만약을 위한 진료

- 세안 후에도 통증, 충혈 등 있는 경우



#### 피부 노출

#### 만약을 위한 진료

- 세척 후에도 발적, 통증, 발진 등이 있는 경우



#### 흡입한 경우

-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상 흡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얇은 정도나 소량의 섭취는 심각한 중독은 일어나지 않지만, 대량으로 섭취한 경우나 잘못 마신 경우는 전신증상이 나타나고 중증화될 수 있다.



### 경구

#### 1) 잘못 마신 경우

- 거품 내어 씻어내는 타입에서는 계면활성제에 의한 구강·인두의 염증,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구토는 1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많다.
- 더러움을 닦아내거나 씻어내는 타입에서는 유분에 의해 일시적인 구토, 복통, 설사를 일으킨다.

#### 2) 대량 섭취한 경우(특히 고령자의 경우)

- 거품 내어 씻어내는 타입에서는 계면활성제의 점막에 대한 작용으로 소화관 출혈, 마비성 장폐색증, 혈관 투과성 항진·세포 팽윤 작용에 기인한 전신성 부종, 순환혈액량감소성쇼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에탄올 함유 제품은 에탄올의 중추신경의 억제에 의해 술 취한 상태, 구역질, 구토, 의식장애 등이 발현할 가능성이 있다. 소아는 알코올에 민감성이 높고, 저혈당성의 경련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혈당저하에 주의가 필요하다.
- 잘못 마시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눈

- 결막 충혈, 눈 통증, 눈물이 날 가능성이 있다.



### 피부

- 가려움이나 붓기, 발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흡입

- 제품의 성질상, 흡입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고형비누, 액체비누, 손비누, 바세린 등의 유분이나 글리세린은 소화기의 약한 자극물에 분류된다. 소량 섭취는 보통 영향은 없지만 있더라도 극히 적다. 경로나 양에 따라 계면활성제나 에탄올의 독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의 작용, 특히 국소작용은 농도에 의존하고 저농도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고농도에서는 중증화된다. 따라서 독성치가 낮다 하더라도 고농도의 물질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에탄올

95~99%의 에탄올은 성인에서 체중 1kg당 1mL의 섭취로 경증~중경증의 중독이, 소아에서는 체중 1kg당 0.5mL에서 중증증상이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다. 단, 개인차는 크며 중독량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 경구

[금기] 오일의 경우, 토하게 하지 않는다.

▶ 이유: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1) 제거 | 입안에 남아있는 것을 뱉게 한다.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입안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닦아낸다.

2) 행궁 | 입을 행궁고 가글한다. 가글할 수 없는 경우는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

3) 수분섭취 | 거품 내어 씻어내는 타입에서는 유제품(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물을 마신다. 마시는 양은 120~240mL

(소아는 체중 1kg당 15mL 이하, 억지로 마시게 하여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이유 : 지용성이며, 유분에 의해 흡수가 촉진된다. 오일의 경우는 수분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억지로 마시게 하여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눈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고, 즉시 물로 씻는다.

•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쉽게 뺄 수 있으면 뺀다.



## 피부

1) 제거 | 피부에 부착된 것을 제거하고 닦아낸다. 부착된 의복은 벗는다.

2) 세척 | 충분히 물로 씻는다.

## 계면활성제

[흡수] 분자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화관에서 흡수된다.

[대사·배설] 간에서 대사된 후, 소변 또는 대변으로 배설된다.

## 에탄올

[흡수] 위,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최고혈중농도에 도달시간은 30분~2시간이다. 흡입이나 경피에 의해 흡수된다.

[대사]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대사되며 이후, 초산으로 대사되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배설] 약 5~10%는 미변화체로 나뉘어, 소변, 땀, 대변으로 배설된다.



## 생활화학제품 응급대처 가이드북 I

※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주세요.